

치매 치료제, 벤처기업 열기 후끈

특허청, 10년간 특허출원 91건 ... 벤처기업 35%에 대학 3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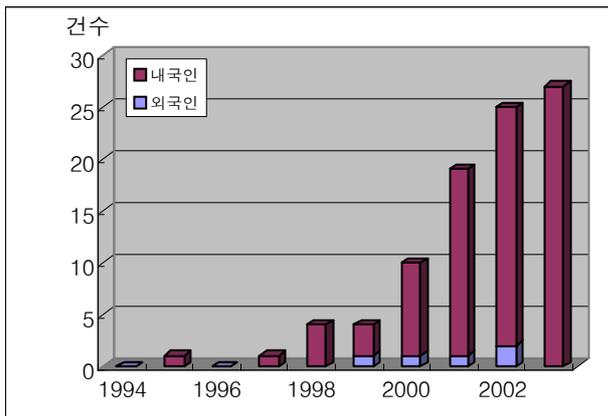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에서 정신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질환 <치매>의 치료제 개발에 천연물을 이용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치매 치료제 관련 천연물 의약 특허출원은 1998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치매 치료제의 총 출원은 91건으로 94%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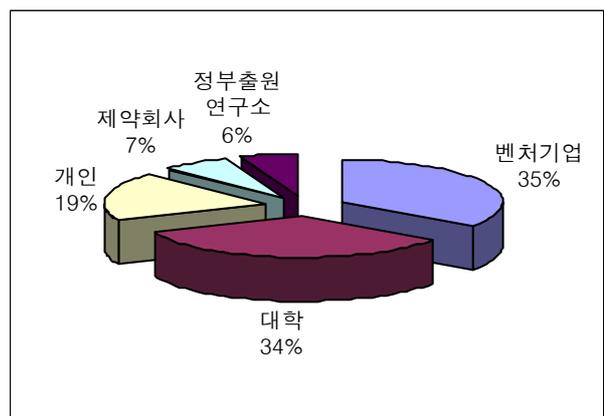
또한 벤처기업(35%) 및 대학(34%)에 의한 출원이 전체출원의 69%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은 특정 벤처기업에 집중돼 있기보다는 다수의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치매 관련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또 천연물 소재로는 1종의 생약 추출물(69%)에 관한 출원이 2종 이상의 생약 추출물(31%)에 관한 출원보다 많았고, 인삼(5건) 및 버섯(4건)을 제외한 다른 생약은 각각 1-2건씩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천연물 재료를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치매치료 천연물 의약관련 특허출원 동향



치매치료 천연물 의약 관련 내국인 출원동향



한편, 치매 치료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4종의 치매 치료제만이 판매되고 있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치매 후보약물도 15종 개발됐으나 대부분 화학적으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치매 치료제는 없었다.

치매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축적돼 발생하는 알츠하이머형(노인성) 치매와 뇌중풍 등으로 발생하는 뇌혈관성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는 약 400만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국내 치매 환자는 1995년 21만명에서 2000년 27만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는 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4/06/08>